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커다란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평화가 일상인 곳에서는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평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겪은지 7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워야 했던 6.25 전쟁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1953년에 전면전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황에 멈춰 서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평화로운 일상에 취해서 정작 그 수면 아래에 침전되어 있는 전쟁과 갈등의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이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한반도에 영원히 평화가 정착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생각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북한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외부의 시선으로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상황을 조명해 보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되짚어 보는 이번 심포지엄은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부분은 남북한 관계를 여러 시선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남북한 문제를 접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늘 주변의 교류하는 분들을 통해서만 듣고 생각을 나누다 보니 우물안에 갇혀서 편향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10월 26일에 있었던 Chris Rice 박사님의 강연은 이런 저의 염려에 단비와 같았습니다. 서방의 관점으로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정치적 이슈를 넘어 남북한 화해의 여정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 주신 것들이 저의 insight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목사님의 이야기 중, 화해자는 양측에서 밟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최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나름대로의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평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충엽 교수님과 최경희 대표님의 강연을 통해서도 남북한 관계나 북향민 지

원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선의로 다가가기는 하지만, 우리 중심적이고, 북한 출신 주민들은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평화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임을 인식할 때,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듣게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얻은 큰 수확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Zoughbi Alzoughbi 대표의 강연은 지금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 내의 이야기를 팔레스타인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정치,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대등한 협상 대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평화이다. 라고 말하는 강연자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왔습니다. 형식적인 평화 상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반자라는 인식이 남북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차별과 편견 없이 우리가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존중받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